

IRS NEWS

No. 31

2 0 1 2
SEPTEMBER
WWW.RUS.OR.KR



모스크바 소재 구세주 성당(촬영 : 한국외대 HK교수 황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동 412호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ugin-si, Gyeonggi-do, 449-791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IRS NEWS

No.31

소장 인사말	3
학술행사	4
토론대회, 서머스쿨	8
단행본 학술지 출판	10
연구소 동정	13

4



역사·사회·문화 분과 국내학술회의 개최(2012.3.22)

8



제2회 전국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2012.5.18)

9



2012 Summer School 개최(2012.6.25-7.13)

IRS Newsletter는
연 2회 발간되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식지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



존경하는 동학제현 여러분!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태풍과 장마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라졌습니다. 올 초 계획했던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 8월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인문한국(HK) 사업 제1단계(3년)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연구소의 운영과 학교의 제도적 지원이 주된 평가대상이었는데, 러시아연구소는 타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규정을 마련해 인문한국사업의 선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학기에는 국내학술회의 3회, 학술세미나 2회, 콜로키움 6회 등 인문한국사업의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월 1일에는 영문학술지 REGION 제2호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연구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러시아연방총서 2권을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전국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와 러시아어 Summer School도 개최해 성황리에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내일의 러시아 지역연구를 주도할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전문가 초청 강연 8회, 중앙아시아·몽골 전문가 초청 강연 4회, 학부 노어과 특강 5회 등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발간, 시민문화 강좌 개최, 2012 대선 리포트 등 선도적 지역연구와 학문의 사회적 대중화사업도 예정대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인문한국사업 제2단계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합니다. 지난 3년을 점검하고 새로이 2단계를 준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가 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러시아연구소 소속 모든 연구인력들은 제2단계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학제현의 지속적인 조연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초청강연회 & 학술행사



역사·사회·문화 분과 국내학술회의 개최

2012년 3월 22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아젠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역사·사회·문화 분과 춘계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 삶의 공간, 에쿠메네의 변화: 권력, 이데올로기, 일상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소비에트 시기와 오늘날 러시아에 나타난 일상의 변화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특히 제3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참석해 오늘날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토의하고, 동시에 러시아연구소가 진행 중인 HK사업에 대해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치·경제 분과 국내학술회의 개최

2012년 3월 29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아젠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3월 22일(목)에 이어 “러시아연방 전환의 논리: 분열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춘계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HK사업 아젠다에 부합하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학술회의는 체제 이행기 20년이 지난 러시아 정치경제 공간의 핵심 쟁점을 ‘분열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읽어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러시아연구소와 학술교류를 맺고 있는 법무법인 미르 측에서 2명의 발표자들이 러시아 법제도 상의 운용과 현실적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논의한 점은 연구자 교류 차원에서 이번 학술회의가 가지는 또 다른 학문적, 실용적 의미라 할 수 있다.



학술세미나 개최 : 러시아연방 지역정체성과 한국기업의 진출 모색



2012년 6월 28일(목)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아젠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러시아연방 지역정체성과 한국기업의 진출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러시아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북서연방관구에 대한 심화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러시아연방 북서연방관구는 유럽으로 향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러시아의 주요 전략공간으로서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는 점을 부각시킨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 모든 참가자들은 새로운 석유 가스 채굴지로 부상하고 있는 네네츠 자치구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과 함께 이 지역이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기대한다는 데 참가자 모두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도 러시아연구소가 지속성 있게 이 지역에 대한 결과물들을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노브고로드, 프스코프, 볼로그다 등 러시아의 문화유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개와 한국과 연관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3개 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개최

2012년 3월 6일(화)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함께 “푸틴의 재집권과 러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작년 12월 총선과 금년 3월 4일 러시아 대선 평가를 위해 시의성 있는 특별 세미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더욱이 대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발표자, 토론자, 참가자들은 모두 푸틴 3기의 러시아에서는 이전과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 평가하면서, 취임 초기 푸틴의 국정운영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문한국(HK)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3개 연구소 소속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밀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3개 연구소는 향후 정기적으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수법 세미나 개최

2012년 5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 러시아연구소는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РУДН),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러시아협력대표부와 공동으로 ‘러시아 어문학 교육자를 위한 교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교육의 메카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학교이다. 이번 행사는 195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외대에 노어과가 개설되고, 한러 수교 이후 30여개 대학교에서 노어 관련학과가 개설된 우리의 현실에서 러시아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원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2.03.02	권경복 조선일보 기자	제1강: 푸틴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제2강: 푸틴의 파워 엘리트
2012.03.16	정세진 한양대 아태연구소 HK교수	제1강: 러시아 이슬람의 역사, 기원	제2강: 현대 러시아 이슬람의 동학: 이념 및 분쟁
2012.03.30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제1강: 러시아적 건축이란?	제2강: 빼제르부르그는 유럽도시인가?
2012.04.06	홍성원 영산대 교수	제1강: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 관리 시스템	제2강: 북극해 항로 상업운항의 발전 전망
2012.04.13	정하경 서울대 노문과 교수	제1강: 언어와 문화	제2강: 러시아어에 나타난 러시아 문화와 민족성
2012.04.27	라승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제1강: 소비에트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여성상	제2강: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영화와 여성
2012.05.11	방교영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제1강: 러시아의 역사적 이미지에 대한 단상	제2강: 세계화 시대, 러시아의 국가 및 국민 이미지
2012.06.01	이리나 코르군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제1강: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 경제의 위상	제2강: 경제 현대화의 문제와 과제

중앙아시아 몽골 전문가 초청 특강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2.03.09	이평래 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	제1강: 몽골 어떤 나라인가	제2강: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2012.05.04	고재남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교수	제1강: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부상과 그 배경	제2강: 중앙아시아 전략적 부상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2012.05.25	Aynura M. Ismayilova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on Economic Reforms, Head Department of Training and Coordination)	Economic Integration & WTO membership in Azerbaijan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월례 콜로키움

일자	발표자	발표 주제	
2012.03.26	최우익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 경제엘리트 연구를 위한 방법론 고찰	
2012.04.26	라승도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국의 변방: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시베리아의 문화 공간	
2012.05.31	제성훈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의 인간 안보	
2012.06.27	장세호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푸틴 3기 권력엘리트의 특성과 정치적 함의	
2012.07.31	김원희 한국외대 불가리아어과 교수	고대 교회슬라브어를 통한 현대 러시아 정신문화의 이해	
2012.08.30	최우익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 지역연구: 블라디미르, 이바노보	

시민강좌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러시아연구소와 함께하는 러시아 문화기행

일자	특강 교수	발표 주제	
2012.03.02	송준서	러시아와 아시아의 만남: 몽골의 러시아 지배와 그 영향	
2012.03.09	김준석	'물위를 걷는 여자,'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2012.03.16	김선래	러시아 자본주의 혁명의 명과 암	
2012.03.23	김혜진	19세기 '이동전람파' 작품으로 이해하는 러시아의 역사와 사회	
2012.03.30	김민수	시베리아의 '꿈' 과 '호랑이': 러시아 소수민족의 기원 신화	
2012.04.06	최우익	러시아 유명 도시의 역사, 문화, 삶의 모습	

학부특강

노어과 특강: 영상으로 만나는 러시아

일자	특강 교수	발표 주제	
2012.04.05	제성훈	몽골: 유라시아의 탄생	
2012.04.26	김선래	시베리아의 이발사: 동토의 땅에서 핀 사랑	
2012.05.03	최우익	동토의 땅 툰드라: 네네츠 자치구	
2012.05.10	장세호	러시아인 묵시록: 테러와 공포의 정치학	
2012.05.17	라승도	록테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 개최



2012년 5월 18일(금)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러시아 <루스키 미르> 재단 및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러시아연방 대외협력청과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신청한 20여개 팀 중에서 16개팀이 최종 참가했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영예의 대상에는 'Мы добрые' (안연주, 성리사) 팀이 수상해, 부상으로 <루스키 미르> 재단이 제공하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3개월 연수의 기회를 얻었다. 금상은 'Тимофеевы' (정고은, 정예찬) 팀이 수상해 부상으로 (주)팔도가 제공하는 러시아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 은상은 'Парадокс' (홍유선, 고주영) 팀이 수상해 러시아연방 대외협력청이 제공하는 1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고, 동상은 'Ура!' (진유훈, 임태현) 팀이 수상해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제공하는 6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밖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이 제공됐다.

작년에 이어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러시아어 토론회는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받았으며, 러시아 내 최대 발간부수를 자랑하는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도 관심을 갖고 이번 행사를 소개했다. 행사를 주최한 러시아연구소 측은 세세한 문제점까지도 보완해 향후 좀 더 짜임새 있는 행사로 거듭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2012 Summer School 개최



6월 25일(월) ~ 7월 13일(금)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는 인문한국사업 학문후속세대 양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2 Summer School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14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수강생들의 러시아어 수준에 따라 '초·중급'과 '중·고급' 두 반으로 구분해 수준별 교육을 통한 러시아어 학습 및 러시아 지역 이해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고 러시아어 문법 지식을 높이는 한편 러시아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은 러시아어 수업 65시간, 원어민 교수와 개별 컨설팅 13시간, 영화특강 및 예술특강 22시간, 종합평가 5시간 등 총 105시간이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진행된 뒷풀이 모임에서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러시아에 가지 않고도 러시아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Русский язык за 3 недели!

2012 러시아어 서머스쿨

- 초·중급반, 중고급반, 고등반으로 수료생 분반운영
- 각상과 문화연수비를 받아야 가능한 학습형태
- 러시아어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
- 학원장님 환영

일시 : 6월 25일(월) ~ 7월 13일(금) (주말 포함)
 장소 : 한국외대(서울) 교문동 25번길 15번길 15번길 15번길 15번길 15번길
 주최 : 한국외대(서울) 러시아연구소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2년 6월 15일(수) ~ 7월 13일(금) 12: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010-4199-2500으로 접수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www.ru.kyu.ac.kr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주소 : russia@ru.kyu.ac.kr

참가비

- 공제 : 100만원 (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학자비 포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0-441-443433 (계좌번호) : 러시아연구소(은행명)

문의

-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15번길 15번길 15번길 15번길 15번길
- 입학문의 : 02-550-1111

한국외대(서울) 러시아연구소



영문학술지 REGION 제2호 발간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 7월 1일 세계적인 출판사 Slavica와 함께 영문 학술지 'REGION' 제2호를 발간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역사학과 시겔밤(Lewis Siegelbaum) 교수와 러시아연구소 소장인 홍완석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은 'REGION'은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이슈들을 분석하는 전문 학술지이다. 제2호에는 시겔밤 교수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소재 우랄대학교 트루비나(Elena Trubina) 교수의 글을 비롯해 총 6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이 게재됐다.



북극의 별 네네츠: 툰드라와 순록, 그리고 석유의 땅

네네츠 자치구는 러시아의 83개 연방주체 중 하나로서 러시아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북서연방관구에 속해 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2배에 달하지만, 툰드라의 척박한 토양과 기후 탓에 상주인구는 4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상주인구에 비해 최근 석유 생산으로 주민 평균소득은 러시아연방에서 제일 높다. 네네츠 자치구는 한여름에도 코끝이 시리고 귀가 아릴 정도로 추운 북극 지대에 속해 있다. 이곳은 여기저기 구멍 뚫린 것처럼 크고 작은 호수로 끝없이 이어진, 그리고 낮은 초목과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땅덩어리이다. 아직 인간의 손이 많이 타지 않은 곳, 밤에는 쏟아지는 별들 사이로 북극성이 빛나고, 낮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페초라 강 물결에 몸을 실어 북극해 빙산에 닿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네네츠 자치구의 자연환경,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나아가 한국과 관계 등에 대해 총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늘날 네네츠 자치구가 지니는 위상과 성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프스코프 주 이야기: 변방의 요새에서 북서 러시아의 관문으로

『프스코프 주 이야기: 변방의 요새에서 북서 러시아의 관문으로』는 러시아 북서연방관구에 속한 프스코프 주에 관한 지역입문서이다. 프스코프 주는 러시아 북서쪽 국경지대에 위치하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다. “러시아가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선전문구처럼 프스코프 주는 러시아 천년고도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러시아 역사에서 ‘변방의 요새’ 역할을 수행해 온 이 지역이 오늘날 ‘북서 러시아의 관문으로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국경지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북방의 등대: 러시아 북서연방관구

러시아는 현재 행정구역상 총 83개 연방주체로 구분돼 있고, 각 주체들은 광역 단위인 8개 연방관구에 속해 있다. 이 중 북서 연방관구는 러시아의 북서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구 내부에 11개의 연방주체, 즉 카렐리아 공화국, 코미 공화국, 아르한겔스크 주, 볼로그다 주, 칼리닌그라드 주, 무르만스크 주, 노브고로드 주, 프스코프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네츠 자치구 등이 있다.

필자들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장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다양한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이 지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책은 현지답사기, 연구포커스, 심층연구의 형태로 구성된 북서연방관구 지역 정보지이다. 독자는 현지답사기를 통해 이 땅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연구포커스를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이곳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심층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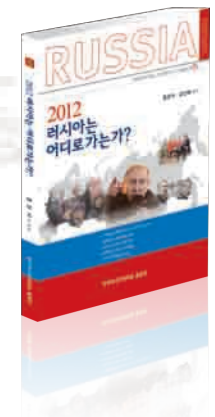
러시아 인문공간: 자연·인간·사회

『러시아 인문공간: 자연·인간·사회』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인문한국사업 '러시아 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아젠다에 맞게 발표한 논문들을 재구성해서 엮은 책이다. 즉 HK연구 인력들이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마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러시아 인문공간: 자연·인간·사회'라는 주제로 새로이 엮음으로써 아젠다의 목적과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켜 출판한 책이다. 제1부 러시아 인문공간의 형성과 발전, 제2부 도시 공간과 지역 정체성, 제3부 러시아 영화의 문화 공간, 제4부 디아스포라의 타자 공간 등 전체 4부로 구성됐고, 수록된 논문은 총 8편이다.



2012 러시아는 어디로가는가?

이 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온라인 주간 칼럼 Russia-CIS Focus에 1년 동안 투고된 글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2년 전에 나온 <20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제1권), 1년 전에 나온 <2011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제2권)에 뒤이은 것이다. 푸틴이 2012년에 집권할지는 2010년 제1권에서 이미 예측한 바 있다. 2011년 제2권에서는 동년 3월 지방선거의 불안한 승리를 분석해 12월 총선에서 드러난 여당의 힘겨운 승리와 오버페이스를 이미 예고했다. 제3권까지 독파한 독자라면 러시아가 이제 어디로 갈 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정치와 외교>, <경제와 자원>, <사회, 문화, 역사> 등 세 개의 장과, 또 장마다 2~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슬라브研究 (제28권 1호~2호)



러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실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던 『슬라브研究』는 2011년부터 연 4회로 증편되었다. 지난 3월, 6월 제28권 1호, 2호가 발간되었으며, 각각 4편, 7편의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을 실고 있다. 『슬라브研究』에 게재된 논문들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rus.or.kr>)에서 볼 수 있다.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9호 ~제10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인문한국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Russia & Russian Federation』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시사성 있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러시아 지역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는 시사정보지이다. 제8호부터는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들이 집필하는 법률상식을 연재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대선 리포트: 푸틴의 복귀와 러시아의 미래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6대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의 당선 의미와 향후 러시아의 미래를 전문가들이 4편의 글로 정리한 정책보고서이다.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집필에 참여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란 취지도 살렸다. 부록으로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법에 관한 자료도 수록했다.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2011년 9월부터 온라인 저널 ‘Russia Watch’와 ‘Zoom in Russia’s Power Elite’ 발간하고 있다. ‘Russia Watch’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문화 현상을 독창적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고, ‘Zoom in Russia’s Power Elite’는 러시아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을 엄선하여 분석해 발간하는 온라인 저널이다. 두 저널의 내용들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에서 볼 수 있다.

IRS NEW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러시아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 1단계 통과, 2단계 시작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 8월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인문한국(HK) 사업 제1단계(3년)를 무난히 통과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제1단계 심사는 2012년 7월 러시아연구소 현장실사와 8월 한국연구재단 면담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연구소 운영과 HK교수에 대한 학교의 제도적 지원이 주된 평가대상이었고, 러시아연구소는 타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규정을 마련해 심사에 통과했다. 제2단계는 2012년 9월 1일 시작된다.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학술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2일(목)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204호에서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러시아 교육자 한국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러시아 교육자들은 총 15명으로 주로 러시아에서 사회과 과목을 담당하는 중등교사들이고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교육제도의 특성," "러시아 교육체계의 발전동향," "우크라이나의 고등교육 개선방향" 등 총 4개의 주제가 발표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국가로 부상하는 데에 교육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고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08년 이후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으로서, 러시아 현직 교사들에게 올바른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손치근 알마티 총영사, 정동은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연구소 방문



2012년 8월 14일(화) 외교통상부 손치근 알마티 총영사와 정동은 이르쿠츠크 총영사가 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러시아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소장과 면담 이후 연구소 전임인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총영사들은 평소 러시아 연구소가 수행하는 HK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러시아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지방연구가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을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연구소 측에 요청했다.

또한 총영사들은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다양한 간행물 덕분에 현지 공관에서도 러시아연구소의 활동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알마티, 이르쿠츠크 공관과 러시아연구소의 항구적이고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상호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연구의 지평을 새롭게 확대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베트남 사회과학아카데미 유럽연구소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년 3월 30일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은 베트남 사회과학아카데미 유럽연구소(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와 학술 및 연구원 교류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 기관은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학술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박사급 연구원 및 교환학생 교류, 연구소 발간물 공유, 자료 교환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추진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제성훈 HK연구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부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성훈 박사가 2012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으로 부임했다. 한국외대 노어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제성훈 박사는 러시아 연구소에 근무할 때,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 체결과 같은 대외협력사업을 주관했으며, 정치분과 국내학술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준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학술회의 공고

- ◆ 주 제 : Space, Memory, and Identity: The Local Experiences of Russia and Korea
(공간, 기억, 그리고 정체성: 러시아와 한국 지방의 경험)
- ◆ 일 시 : 2012.10.05(금) 13:30~19:00 2012.10.06(토) 09:30~18:20
-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 ◆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한국동유럽발칸학회
-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발행하는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정치 · 경제 · 사회영역뿐 아니라
어학 · 문학 · 예술 등 모든 영역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주간 인터넷 칼럼입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에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부의 검토를 거쳐 실리며, 소정의 고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 지역 정보를 갈구하는 동학제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형 식 : 한글 기본화면, 11포인트, 2페이지 내외
- ◆ 내 용 : 러시아 · CIS 지역에 관련된 글

- 홈페이지 참조 : www.rus.or.kr
- 보내주실 E-mail : hkirs@hufs.ac.kr
- 문의전화 : 031-330-4852

항상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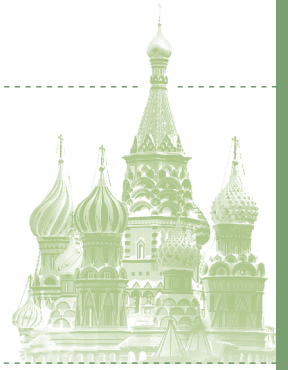
※ 기존의 Russia · CIS Focus 칼럼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Russia · CIS Focus
칼럼투고안내



슬라브研究

논문투고안내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발간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깊이있고 참신한 연구논문을 실고 있습니다.

- 『슬라브研究』 발간일 : **12월 30일** (제28권 제4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10월 20일**

『슬라브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및 초록
- 2) 논문키워드(국문5개, 영문5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www.ru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
- Tel: 031-330-4661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